



멕시코·미국 경계문화

■ 왜 경계인가?

– 멕시코·미국 국경연구의 성과와 과제

박 정 원

스페인어 ‘frontera’, 영어로 ‘border’는 ‘경계’ 혹은 ‘국경’으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이 단어가 최근 수십 년간 국내외 학계에서 문화를 논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크게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이 ‘경계’라는 용어는 거의 사회 전분야를 막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현상, 그에 대한 방법론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멕시코·미국 국경은 실제로 ‘경계’라는 담론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모델 중의 하나로 평가받으며, 80년대 말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된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전세계 분열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때와 일치한다 —또는 이 사건은 국경과 경계를 재고하게 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 도래의 상징이 된 이 국경이 주목받게 된 배경을 이 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인 상징성을 들 수 있다. 세계화 시대가 도래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이 촉진되면서 국경을 넘어서는 다양한 산업교류가 한층 가속화되고 본격화되었다. 이 가운데, 1994년 캐나다, 미국 그리고 멕시코를 연결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타결은 특히 그 결과로서 멕시코·미국 국경 지대에 대한 경제적 투자를 가속화시켰으며 글로벌 시대의 하나의 바람직한 투자-생산-소비의 모델로서 인식되게 된다.

둘째는 문화적 측면이다. 국경 지대는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식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두 나라의 독립 이후,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일종의 문화적 접이지대로서 역할을 한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 주 일부가 19세기 전반기까지 멕시코 영토였으며, 미국으로 귀속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치적 갈등과 문화 교류의 장소였다. 특히, 지난 세기 지속된 멕시코 이민으로 미국 남서부 지역의 멕시코 문화는 기존의 역사적 배경과 맞물려 새로운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멕시코 북부 지역 역시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멕시코 내부에서도 가장 미국화된 지역으로 여겨왔다.

셋째, 이러한 두 문화가 공존하고 갈등하는 이 지역은 새로운 시대적 이론과 담론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곳이었다. 즉, 포스트모던 이론과 탈국가 논의는 이분법의 해체와 기존의 국가중심 사고와 틀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이산과 이주, 이로 인한 경계의 해체를 통해 새로운 문화와 실천의 가능성을 보여주려 하였다. 특히, 영미 탈식민주의 이론이 제기한 혼종성 이론은 경계 연구라는 지역연구의 새로운 이론적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면서 다양

한 문화가 가로지는 공간에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경계의 해체, 국가 담론의 종말, 그리고 그 새로운 징후를 읽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경계나 국경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당연한 결과이다.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멕시코에서 활동 중인 문화이론가 가르시아 칸클리니는 저명한 저서 『혼종문화』에서 호미 바바가 이론화한 민족의 이산과 문화의 이동이라는 문제의식을 20세기 말 멕시코 문화와 세계 최대의 국경 도시이자 멕시코·미국 접경 도시, 티후아나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1950년대에 겨우 6만 명이던 곳이 채 30년도 지나지 않아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한 메트로폴리스로 변한 티후아나는, 가르시아 칸클리니가 보기에 뉴욕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실험실이다. 이주를 통해 한 곳에 모인 다른 문화들이 상호 교류하고 뒤섞인 까닭에 순수한 문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이 도시를 통해 향후 라틴아메리카의 미래를 이 도시를 보여주고자 했다. 왜냐하면 티후아나는 두 국가의 접경을 넘나드는 탈국가·탈영토의 노마드적 이민자들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멕시코·미국 국경에 대한 경제적·문화적·이론적 측면의 접근은 결국 세계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에 대한 존재론적 기대와 인식론적 대응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전의 국가 중심 틀을 넘어서는 사고의 확장과 새로운 사회구성 원리에 대한 기대는 경제적 변영이라는 환상의 내러티브를 조장한다. 특히, 나와 타자, 중심과 주변의 명확한 구분선으로 여겨온 국경이라는 틀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중심과 주변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장밋빛 분석은, 특히 이전까지 주변부 혹은 제3세계로 부르던 멕시코쪽 국경 지역에 더 많은 기대를 갖게 했다. 실제로도 이 지역에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러한 이질적인 사회적 구성요소들의 모임과

절합은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사회적 현상이 공존하는 독특한 시공간이 형성된다. 이와 동시에, 두 국가 두 문화의 접합으로 상징되는 독특한 형식과 내용이 표현된 문학, 음악, 패션, 스타일 그리고 언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문화가 소개되고 연구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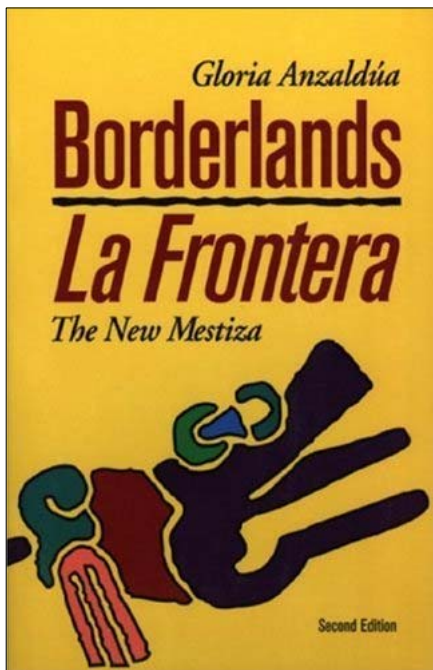
하지만 90년대를 거치고 새로운 세기의 첫 십년을 보내면서, 멕시코·미국 국경은 새롭게 해석된다. 아니,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는 무엇보다도 세계화가 변영의 환상만큼이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는 현실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와 결합한 경제적 세계화로 이 지역은 상대적인 발전과 경제적 활성화와 더불어 불평등과 도시빈곤의 확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라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되었다. 경제적 변영의 상징으로 여긴 마킬라도라 산업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오히려 거대한 도시빈곤을 야기하였고, 임금이 상승하자 더욱 값싼 노동력을 찾아 다른 대륙이나 국가로 산업을 이전함으로써, 한때 세계 최대의 텔레비전 생산 도시이던 티후아나의 명성은 사라졌다.¹⁾

다른 한편으로, 세계화와 더불어 국가 간의 경계와 경계의식이 희석될 것이라는 이론적 전망은 국경의 강화라는 정반대의 현실로 드러난다. 90년대 이후, 미국으로 이민이 폭발적으로 다시 증가한 결과 이제는 최대 소수인종으로 성장한 라티노에 대한 ‘반이민정서’는 최근에 들어 격렬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야기했다. 실제로 2006년 불법이민자의 인권 보장과 시민권 획득을 위해 미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60년대 말 시민권 운동 이후 최대 인파가

1) 마킬라도라(Maquiladora) 산업은 멕시코·미국 국경 지대에서 최초로 시작된 초국적 혹은 다국적 형태의 산업으로 한 제품의 부품들이 전세계로부터 들어와 멕시코 국경 도시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조립을 마친 후 관세 혜택을 통해 미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재수출되는 형식을 말한다.

참여한 행진과 시위의 물결이 일었으나, 바로 그 다음해 하원의 이민법 통과를 저지하고, 국경을 강화하고, 이민자를 범죄인 취급하는 전국적인 반이민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와 아울러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바로 9·11 사태 이후로 전개된 국가안보 이슈의 도화선이 멕시코·미국 국경으로 옮겨붙었다는 것이다. 이 담론에 의하면, 불법이민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위험’이므로, 국경을 강화하고 이민을 강력히 통제하는 것이 사회적 ‘안전’을 보장한다는 등식이 성립된다. 실제로 부시 정권은 군병력(경찰이 아니라)을 국경지대로 파견하고,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며, 두 나라 사이의 ‘담’을 보다 공고하게 구축하는 일련의 법조문과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인종주의와 차별을 넘어, 세계화 담론에 묻혀있던 주권과 국가 개념의 재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²⁾ 실제로 국경 지역은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흐름과 이런 흐름을 불법이민과 마약범죄조직이라는 혐의로 통제하려는 권력 사이에서 빚어지는 긴장과 갈등, 폭력과 공포의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는, 치카나 페미니스트 글로리아 안살두아가

말한, “멕시코·미국 국경은 3세계가 1세계를 만나서 피흘리는 바로 그 장소” 라는 정의를 명확하게 보여준다.³⁾

2) 주권 권력 이론의 재등장과 국경과의 관련성은 최근 국경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을 참조하라.

3) 안살두아는 최초로 두나라 사이에서의 국경의 문제가 ‘경계지대’를 형성한다고 이

‘경계이론’의 위기는 이렇게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적, 경제적 폭력, 불평등, 통제의 현실에서 기인한다. 중심과 주변의 해체, 문화 민주주의의 도래를 예견하는 혼종성의 장소로서 멕시코·미국 국경은 세계화의 심화와 함께 문화적 교류와 실험을 압도하는, 하지만 여전히 글로컬(global)한 현실적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포착한 이들은 다름 아닌 국경지역에서 성장한 젊은 지식인들이었고, 이들은 혼종성 이론을 재고하거나 격렬히 반대하면서 2세대 경계 이론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예를 들어, 에르베르토 예피스는 혼종성 이론은 결국 각각의 이질적인 요소들이 갈등 없이 한데 뒤섞일 수 있다는 조화론에 근거한다고 비판한다. 즉, 혼종성 이론은 정반합이라는 헤겔의 변증법에 의지하여 과정상의 갈등과 배제의 논리를 묻어둔 채 결과로써 혼종(새로운 잡종문화의 탄생)만을 강조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2세대의 견해는 멕시코·미국 국경지역, 특히 멕시코쪽 지역이 혼종성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이용된 것이 아닌 가하는 강한 의심을 드러내며, 조화와 뒤섞임에 가려져있던 지역의 구체적인 사회적·문화적·경제적 문제들을 드러내는 것을 그들의 비평적 과제로 삼는다.

놀랍게도 이 경계(또는 국경) 이론의 중심 이동은 세계화에 대한 우리들의 논리적·감성적 수용의 시대적 차이와 일치한다. 즉, 세계화에 대한 기대는, 새로운 불평등과 폭력적 구조를 드러냄으로써 이제는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이미지로 바뀌었으며, 이에 대한 반작용의 하나로 여러 지역에서 민족의 담론이 다시 생산되고 있는 것을 목도할 수 있다. 멕시코·미국 국경에 대한 인식은 그러므로 세계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관계가 있다. 즉, 멕시코·

문화한 *La Frontera/Borderlands: The New Mestiza*로 미국 (정확하게는 멕시코 아메리칸) 쪽에서 바라본 국경에 대한 고전으로 불린다.

미국 국경은 세계화의 가속화와 세계화의 정치학으로서 신자유주의를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다.

‘경계이론’, ‘국경연구’에 대한 역사는 채 30년도 되지 않았고, 그 영역은 학계에서 여전히 자신의 위치를 찾고자 하는 초기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이 짧은 기간에 롤리코스터와 같은 해석의 간극을 경험한 멕시코·미국 국경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까? 혹은 ‘국경연구’의 상징적 가치와 역사적 과정을 통해 어떤 시사점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

우선, 현재 비판의 중심에 있는 혼종성 이론에 대한 유산과 포스트모던 이론의 함의를 완전히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이주와 탈영토화가 빚어내는 전지구적 역동성은 민족국가를 넘나드는 모든 영역에서 만남과 교류에 대한 이해를 더해준다. 또 한 가지 인지해야 할 점은, 이제 어떤 집단도 동일자로 구성될 수는 없으며, 순수 동일자의 논리에 의해 작동하지도 않는다는, 차이와 비순혈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던져준다. 그렇다고 뒤섞임과 혼종으로 인한 결과가 다른 문화 사이의 조화로 귀속되고, 사회적·문화적 적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2세대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이주와 변동으로 인한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충돌이나 적대라는 새로운 권력과 문화의 지도가 그려지는 것이다. 즉, 경계는 ‘사라지거나’ 이와 반대로 ‘고정되기’보다는 ‘이동’하면서 ‘재생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멕시코, 멕시코·미국 국경은 경계에 대한 인식론적 문화적 해석의 공간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국경, 나아가 모든 영역의 경계적인 사고와 활동에 영감을 불어넣고, 예시가 되고 있다.⁴⁾

4) 특히, 여전히 분단 상황에 있는 한국의 국경은 경계이론의 비교 연구에 매우 유

이와 동시에, 이 지역 자체에서 생산되는 목소리와 그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특수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특히, 2세대 연구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론적 모델이나 가설의 증명을 위해 이용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두 나라의 독립 이후 생겨난 이 국경은 19세기 이래로 두 나라 사이의 지속적인 교류와 갈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양쪽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그 지역만의 독특한 언어와 풍습, 종교, 음악을 발전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종종 이 지역의 문화가 중심으로 확장되기도 한다.⁵⁾

특히, 이주 현상으로 인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도시화의 문제, 마약의 생산과 소비를 중개하는 장소라는 새로운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경지역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감시와 통제 그리고 공포의 구조를 재생산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경에 대한 명명의 정치학(‘제3의 국가’, ‘멕시코아메리카’, ‘통로’ 그리고 ‘혼종 문화’)을 넘어선 새로운 학문적 실천이 요구된다.

세계화의 양가성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역설이 낳은 이 지역의 현실을 꼼꼼하게 관찰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행위 주체들의 궤적을 추적하는 것이 현재의 멕시코·미국 국경 연구에 남겨진 과제이다. 그리고 경계의 영역을 조심스럽게 확장하면서 다른 종류의 다양한 ‘국경’과 ‘경계’를 비교 연구하는 것, 이것이 지역 연구로서, 비판 이론으로서, 문화 연구의 한 갈래로서 ‘국경(경계)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정원 - 미국 노스콜로라도 대학교 교수

의미하고도 필요한 관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5) 현재 멕시코 대중문화 속에 유행하는 북쪽(norteño) 스타일-패션, 음악, 언어-은 국경지대의 문화가 중심으로 진출한 최근의 경향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